당신에게 사랑 선물 한보따리

연말연시 로맨틱 코미디 연극 풍성

연애 숙맥 두남녀 동거이야기 '개인의 취향'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 '러브 액츄얼리…' 등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는 연말 연시 연인들이 관람하기 딱 좋은 장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인 터라 감정이입도 쉽고, 연극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관람할 수 있다. 잔잔한 감동과 유머 역시 이 장르의 특징이다.

연말 연시, 광주에서는 다양한 로맨틱 코미디 연극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장르 특성답게 24, 25일은 표를 구하기 어려운 작품들도 있다.

연극 '개인의 취향'은 2014년 1월5일까지 우체국보험 기분좋은 극장에서 공연된다.

손예진·이민호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잘 생긴 게이 남자와의 갑작스런 동거와 그 안에서 싹트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한옥 상고재에 혼자 살던 우민은 방 하나를 세놓는다. 남자는 절대 사절 원칙을 갖고 있던 우민은 집을 보러온 진호가 게이라는 말에 엮일 일이 절대 없다는 생각으로 그를 동거남으로 받아들인다. 연애에 숙맥인 우민은 진호가 얽히면서 점점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드라마의 배경인 한옥 상고재를 무대 위에 아기자기하게 재현했다. 월요일 공연 없음.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1600-6689.

연극 '러브액츄얼리-첫 번째 사연'은 오는 1월5일까지 충장로 기분좋은 극장에서 공연된다. 사랑에 대한 세가지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으로 연인들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작품의 배경은 90년대 마로니에 공원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가장 두근거리고 설레는 100일 커플, 연애 3년차를 넘어 슬슬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 커플, 이제는 연인보다는 부부나 친구 같은 10년 커플이 그려내는 사랑 이야기가 유쾌하다.

월요일 공연 없음.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1600-6689.

또다른 로맨틱 코미디 '그 남자 그여자'(29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는 지난 2007년 초연 후 대학로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라디오 방송작가 이미나가 '이소라의 FM 음악도시'에서 썼던 사랑 관련 에피소드를 모은 책 '그여자 그 남자'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수더분한 인상의 영훈은 회사 동료 선애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쉽사리 말을 건네지 못한다. 풋풋한 대학생 영민은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학교 학생 지원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영훈·영민 형제가 만들어가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재미있다. 티켓 가격 3만5000원. 문의 1588-0766.

달동네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2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에도 젊은 남녀의 잔잔한 사랑 이야기가 흐른다. 연인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은 서울의 달동네.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는 엄마는 정신 지체 큰 아들 우현, 백수 도현과 함께 억척스런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 가족처럼 지내는 일본인 도요타, 배우 지망생 안경, 보성에서 상경해 주경야독하며 성공을 꿈꾸는 써니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

티켓 가격 3만원. 케냐 영수증 제시 시 30%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5무(無)의 새해를 위하여

일흔 세 살의 선생은 고령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다. 그리고 어찌나 달변이던지 막힘이 없었다. 잠시도 쉬지않고 말을 이어가는 바람에 수첩에 받아 적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날 기자는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선생의 말을 중간에 '끊는' 무례를 범해야 했다).

게다가 1시간 30분의 인터뷰가 끝나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기자일행을 배웅하는 등 친절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을 잘 받았다는 전화를 직접 걸어와 기자를 또 한번 감동시켰다.

지난 2006년 4월, 광주일보 창사 54주년 기념 특별대담으로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80)을 만났을 때의 일화다. 권위와 격식을 내세우지 않았던 소탈한 모습이 엊그제 일 마냥 지금도 생생하다. 늘 시대를 앞서가는 그의 혜안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빛을 발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준비하는 광주에게 선생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미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조언했다.

'영원한 청년'일 것 같은 이어령 전 장관이 최근 팔순을 맞았다. 그런데 신간 '생명이 자본이다'의 출판기념회를 겸해 열린 그의 팔순잔치는 여느 유명인사들의 화려한 '팔순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으레 팔순잔치에 빠지지 않는 화환이나 얼음조각, 그리고 축의금과 같은 겉치레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나와 동행한 분들인데 누구만 VIP라고 소개할 수 없다"는 선생의 뜻에 따라 내빈소개와 축사도 없었다고 한다. 이름하여 '5무(無)잔치'. 대신에 시낭송, 사물놀이, 패션쇼, 현대무용 등 문화향기가 가득한 축제로 치러졌다.

매스컴을 통해 이 전 장관의 팔순잔치 기사를 접하면서 기자는 역시 '선생답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문득 얼마 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재일교포 하정웅의 '나눔의 미학전'(11월 22~내년 2월9일) 개막식이 오버랩됐다. 지역 인사와 청년작가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내빈소개와 축사가 30분 넘게 이어졌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사회자는 행사 중간 중간에 소개를 빠뜨린 '귀빈'들을 챙기느라 바빴다. 행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은 물론이다.

사실 어디 전시회뿐이던가. 광주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문화행사와 축제의 개막식에는 시장이나 기관장의 인사말, 축사, 내빈소개 등이 빠지지 않는다. 가장 '문화적'이어야 할 이들 행사가 형식과 겉치레 일색의 의식(儀式)으로 치러지는 것이다. 개막식 자체만 보면 광복절 행사인지 브랜드 공연 페스티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부디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이런 '거품'들이 지역문화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7년 전 이 전 장관이 광주에게 조언했던 도시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피아노로 떠나는 이탈리아 순례

조연미 독주회 30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조연미 독주회가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곡목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에 언급돼 화제를 모았던 리스트의 '순례의 해'의 두번째 '이탈리아'편이다. 책에서는 첫번째 스위스편 '향수'가 언급됐었다.

'음악으로 쓰는 여행기'라는 평을 받는 '순례의 해-이탈리아'는 '혼례', '생각하는 사람', '살바토르 로자의 칸쪼네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베토벤의 '소나타 31번' 도 들려준다.

광주예고를 수석입학한 조씨는 재학 중 독일로 유학을 떠나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우등 졸업했다.

2008년에는 에후디 메뉴인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제주시향 등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귀국 후 광주대 강사를 지냈고 전남예고, 호남신학대 등에 출강중이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10-665-034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상 단 하나뿐인 수공예품

무들마루, 26~30일 갤러리 궁서 무인 아트마켓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수공예품을 살 수 있는 무인 아트마켓이 열린다.

2013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운영사업단 '무들마루'(총감독 신호윤)는 26~30일까지 예술의 거리 갤러리 궁에서 무인 아트마켓을 운영한다.

무인마켓에는 수제 액세서리와 가방, 도자기, 비누, 양초 등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선을 보인다.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무인 아트마켓은 올해 5월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열렸던 예술의 거리 '거리미술제'와 같은 형태로, 연말을 맞아 맞춤형 선물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진행된다.

28일 오후 5시에는 작은 파티도 열린다. 무인마켓에 출품한 판매자들과 작가들이 시민과 직접 만나는 날로 거리미술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밴드공연과 다과도 즐길 수 있다. 문의 광주문화재단 062-670-7452, 무들마루사업단 062-471-151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청소년 연극 수강생 모집

광주시립극단이 청소년 연극아카데미 '늘품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연극에 관심 있는 광주 시내 중·고교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20명 모집한다. 수강은 2014년 1월 3일~28일까지 매주 월~금요일(오후 2~5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층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연극 이론, 연기훈련, 신체훈련, 공연실습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연극 제작 및 발표 공연을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강사진은 김지훈, 강원미, 고난영, 이명덕 등 연출가, 배우, 예술 전문강사가 참여한다. 수강료는 9만원. 문의 062-511-2759.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